



가스안전공사 광주본부, 철도 건설현장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현장 내 노출배관 및 이설작업 중인 배관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해양에너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건설현장 지면이 불안정해지며 토사 붕괴 위험 및 노출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출배관 손상 방지조치 및 비틀림, 휨상태 여부 △침하 및 붕괴방지조치 설치와 상태 점검 △현장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유무 △가스누출경보기 및 긴급차단밸브 △소화기 및 인화성,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을 집중 확인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기독병원, '장애인 지원체계' 업무협약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광주지역 유관기관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동구보건소,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기독병원과 6개 기관은 향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계사업수행 △지역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기타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 'Re:Branding 2030' 새 비전 선포

전남대학교병원이 '미래 의료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 행복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새 비전을 제시하며 'Re:Branding Vision 2030'을 선언했다. (사진)

지난 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 & 상반기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전남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지향점을 담아 새롭게 수립한 비전, 3대 경영방침,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주성필 기획조정실장의 경과보고로 진행된 'Re:Branding Vision 2030'은 경영진 인터뷰 및 직원 설문조사, 보고회 등 점검활동을 바탕으로 전남대병원의 미래상과 현안, 내부역량 등을 분석했다.

새 비전인 '미래 의료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 행복의 든든한 동반자'는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 등 전남대병원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부요인의 변화에 대응한 노력과 도전의지를 강조했다.

비전에 이어 3P로 요약되는 3대 경영방침도 정립했다. 'Practical(실용주의)', 'Prove(자율검증)', 'Patient first(환자중심)'의 앞 단어로 만든 3P는 환자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료, 지역 의료인력 양성, 국민의 실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실용주의의 관점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용주의'와, 진료·교육·연구·행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분명히 하고 피드백을 통한 자기 성찰을 추구하는 '자율검증'을 나타낸다.

또 전남대병원의 존재 이유이자 병원 구성원이 모두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인 '환자중심'은 모든 업무의 궁극적 목적 대상은 환자로, 병원 구성원으로서 사명감을 환기시켜 환자 최우선 사고를 인식하자는 취지다.

노병하 기자



한국의학연구소, 광주 서구에 후원금 전달

광주 서구는 지난 5일 (재)한국의학연구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 7일 서구에 따르면 (재)한국의학연구소는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 중 장애인의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화관람 사업'을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구는 이번 후원금을 통해 사업 홍보, 대상자 모집을 거쳐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영화관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한국의학연구소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구장애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빛마루시니어센터 3개소에 백미 3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소중한 후원금으로 문화생활을 경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산구의회, 배식 봉사로 의정활동 시작

광주광산구의회 의장단이 지난 9일 광산구더불어라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에 나섰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은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행보로, 김명수 의장과 이우형 부의장, 박해원 운영위원장, 박현석 행정자치위원장, 김영선 경제복지위원장, 양만주 시민안전위원장 등 의장단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식 배식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는 등 봉사에 임했다. 또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김명수 의장은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지역의 버팀목이 돼 주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현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구민께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에스파 '슈퍼노바'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달성

결그룹 '에스파' (aespa·사진)의 '슈퍼노바(Supernova)'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슈퍼노바'는 에스파의 정규 1집 '아마겟돈(Armageddon)' 선공개 타이틀곡이다. 무게감 있는 킥과 베이스 기반의 미니멀한 트랙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곡으로 내 안의 폭발을 초신성에 빗댔다.

에스파는 전작인 '블랙맘바(Black Mamba)'와 '넥스트 레벨(Next Level)', '새비지(Savage)', '트림스 컴 트루(Dreams Come True)', '걸스(Girls)', '도깨비불(Illusion)', '홀드온타이트(Hold On Tight)', '스파이시(Spicy)', '드라마(Drama)'에 이어 통산 10번째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지난 3일 발매된 에스파의 일본 데뷔 싱글 '핫 메스(Hot Mess)'는 미국 매체 업록스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주 최고의 신곡'에 선정됐다.

댄스곡 '핫 메스'는 색소폰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거친 랩 등을 기반으로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는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슈퍼노바'를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 켄지(KENZIE·김연정)와 H.도요사키(Toyosaki)가 참여했다.

에스파는 오는 11일 일본 나고야, 14-15일 사이타마에서 아레나 투어 '2024 에스파 라이브 투어 싱크 : 패러렐 라인 인 재팬' (2024 aespa LIVE TOUR - SYNK : PARALLEL LINE - in JAPAN)을 펼칠 예정이다.

뉴시스



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광주 서부소방서는 양동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의 중요성 등 소방차량 양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요령은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운전 등이다.

조호의 현장대응3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출동 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주교통공사, 송원대 교육생 현장실습 실시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교육생 22명을 대상으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교통공사와 송원대 간의 산학협약에 따라 이뤄진 이날 교육에서는 광주도시철도 기관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중정비교 견학, 선로전환기 취급, 열차 시운전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펼치며 생생한 실습 교육을 받았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역의 철도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나인우, 데뷔 10년만 첫 팬미팅... '어거스트 인우 러브'

배우 나인우(사진)가 첫 국내 팬미팅을 연다.

지난 1일 소속사 하나다컴퍼니에 따르면, 나인우는 내달 10일 서울 강서구 스카이하트홀에서 첫 번째 팬미팅 '어거스트 인우 러브(AUGUST INWOO LOVE)'를 연다.

이는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는 단독 팬미팅이다. 그는 지난 3월 태국 방콕, 4월 일본 도쿄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며 글로벌 팬들

을 만난 바 있다.

팬미팅 티켓은 인터넷 티켓을 통해 8일 오후 8시 공식 팬클럽 대상 선예매, 10일 오후 8시 일반 예매가 각각 진행된다.

한편 나인우는 올 초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활약했다. 차기작으로 MBC TV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를 확정했다. 뉴시스